

미국무장관, 하마스가 휴전방해...라파 지상전은 반대

지난해 10월 개전 후 이스라엘 7차 방문 하마스에 휴전-인질석방 합의 수용 촉구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하마스에 가지구 휴전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아비브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나 "우리는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휴전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데 결연하다"며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휴전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가 말했듯이 지연도, 변명도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휴전 합의를 통해 가지구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식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즉각적인 휴전 합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휴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하마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를 피할 필요성과 중동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논의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현재 가지구 피난민 140만명 가량이 체류 중인 가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는 민간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라파 지상전에 나서는 데 반대해온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지난날 4월 조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족들과 만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개전 후 7번째다. /로이터=연합뉴스

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지난날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의 통화 이후 가지구로 가는 인도적 지

원에 진전이 이뤄진 데 대해 논의했으며, 이러한 진전을 유지하고 가속할 필

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7번째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언론에 공개된 국무부 일정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전사내각의 일원인 야당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만난 뒤 인도주의 물품 수송을 위해 다시 문을 연 이스라엘 남부 가지구 인근 아슈도드 항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한 뒤 돌아갔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고위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 판다보호센터 "푸바오, 곧 대중과 만날 것"

"격리 종료 후에도 당분간은 선수핑기지서 생활"

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지 4주째에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1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에 올린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 4'란 제목의 영상 설명을 통해 "푸바오의 격리-검역 생활이 곧 만료된다"며 "푸바오가 곧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분24초 분량 영상에는 푸바오가 새 보금자리인 위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貓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의 격리-검역 구역에 머물며 대나무와 사과, 죽순, 당근, 옥수수빵 등을 왕성한 식욕으로 먹는 모습이 담겼다. 또 실외로 나가 풀숲을 빠르게 돌아다니는 모습과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손을 잡는 등 새로운 사육사와의 생활에 잘 적응하는 장면도 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

센터 측은 "푸바오가 검역 당국 검사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격리 생활이 종료될 것"이라며 "다만 환경 적응의 위

험을 줄이기 위해 격리 생활 종료된 뒤에도 선수핑기지에서 추가 적응 시간을 가진 후 시점을 선택해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푸바오는 격리 이후에도 위룽 선수핑기지에서 당분간 생활한 뒤 선수핑기지와 허타오핑기지(核桃坪基地), 두장엔기지(都江堰基地), 아안기지(雅安基地) 중 한 곳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센터는 지난달 10일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 1'이라는 제목의 1분42초 짜리 영상을 공개한 이후 같은달 17일과 24일 같은 제목의 2·3편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20일 태어났다. 그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공주', '푸뽀뽀'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는 태어난 지 1천354일 만인 지난달 3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日 기시다 총리 '전쟁포기' 헌법 개정?

일본인 65% "서두를 필요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일본인의 65%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3천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서두를 필요 있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았다면서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여러 차

레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에도 "임기 중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는 조문안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당파를 넘는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 개헌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그 반대는 67%를 차지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중 고속도로 침하로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지난 1일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붕괴 사고(사진)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 2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30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전날 오후 기준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0명이었다. 이번 사고는 연휴(1-3일) 첫날인 전날 오전 2시10분께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 메이다고속도로 푸젠성 방향 구간에서 노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

생했다. 붕괴한 노면의 길이는 17.9m, 면적은 184.3㎡에 달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산비탈로 추락, 토사에 묻혔다. 전날 중국 관영매체들은 매몰된 차가 20대라고 보도했으나, 이날 보도에선 23대로 늘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엔 차들이 떨어던 경사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졌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글도 올라왔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계속된 비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가 무너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